

#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금메달 선물 하고파”

‘도마의 신’ 양학선



“다시 한번 멋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선물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도쿄에서 7월24일부터 8월9일 까지 열전이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광주출신 중에는 체조의 양학선 선수가 8년 전 런던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금메달에 도전한다.

진천 선수촌에서 도쿄올림픽 우승위해 ‘구슬땀’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하며 기대감 높여

1992년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 태어난 양 선수는 주로 서구 양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광천초, 광주체육중, 광주체육고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체대를 거쳐 현재는 수원시청 소속으로 한국 체조를 대표하는 간판스타로 활약하고 있다.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 머물고 있는 양 선수를 위해 <뉴스1>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균형과 함께 새해 다짐을 들어

봤다.

양 선수는 “부모님은 모두 전북 고창에 거주하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경기도 하남에 있어, 광주에 자주 내려가지는 못한다”며 “광주에서 태어나 조·중·고교를 자녀 만큼 친구들은 많아도 자주 보지는 못하고 전화 연락으로 안부를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1월 선수촌에 들어가 주중에는 선수촌에 머물

며 경기 출전과 몸 만들기를 병행하고 있다.

몸 상태를 묻는 질문에 “최근 올림픽 선수 선발전을 뛰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면서 “겨울에는 바이오리듬이 많이 깨지는 편이데, 이 정도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상 부위인 햄스 트링은 고질병이라 지금도 관리를 잘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며 “김독님과 상의해 가며 웨이트 위주로 큰 무리없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촌의 하루 일정은 오전 6부터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아침식사 후에는 재활훈련 위주로, 오후 3시부터 7시반까지는 기술훈련과 경기 준비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다.

양 선수는 오랜 부상을 딛고 지난해 3월 아제르바이잔 바쿠 월드컵에 이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종목별 월드컵 도마 남자 결선에서도 잇따라 우승을 차지하며 도쿄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에 어느 때보다 높다.

올림픽 메달 전망에 대해 “스타트 점수에서 제가 우위에 있지는 않지만, 경쟁자는 1~2명 정도”라며 “제 실력만 무난하게 발휘하면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열린 제49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도마 결선에서 결선 진출 8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양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는 정말 아쉬웠다”며 “지난해 통틀어 사합 나가서 딱 한번 실수 했는데 그 대회가 하필 세계 선수권 대회였다”고 말했다.

양학선 선수는 공중에서 3바퀴 돌고 착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1, 2차 시기의 평균으로 순위를 기리는 도마 종목에서 9년째 같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올림픽을 처음 뛰고 나서 8년이 지났다”며 “몸 상태는 첫 출전 때보다는 많이 다르지만 제 기술은 아직 세계적으로 막힌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8년이 지난 지금도 올림픽 도전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2020년에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올림픽 & 빅리그…‘대투수’ 양현종 2020 또 다른 도전

매년 각별한 관리 통해 목표 모두 이뤄내



9시즌을 100이닝 이상 던졌다. 큰

부상 없이 활약했다.

올해는 국가대표 애스로 존재감을 시험받는다. 앞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제몫을 했다. 그러나 WBC, 베이징올림픽, 프리미어 12 등 세계대회에서는 애스가 아니었다. 특히 작년 도쿄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대회 결승전에서는 조기강판하는 수모를 당했다.

예선리그와 본선리그에서 2승을 거두며 애스의 뭇을 했다.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3-0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1회말 한 점을 내주고 2회말 야마다 데스토에게 역전

3점 홈런을 맞았다. 3회는 2사 1, 2루 위기를 넘기는 힘겨운 결승전 등판이었다. 결국 75개의 볼을 던지고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결과는 3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4실점 패전투수. 일본킬러로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으나 결과는 달랐다. 스스로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심기일전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애스로 명예회복에 도전한다. 또 다른 애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올림픽 출전은 어렵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지켜내는 일은 오로지 양현종의 몫이다.

개인적으로 KBO리그 7년 연속 폴타임 선발과 통산 150승에 도전한다. 작년까지 136승을 올려 14승을 올리면 고지를 받는다. 양현종은 지난 연말에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나타냈다. 2020시즌을 마치면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32살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소 늦었지만 오랜 꿈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쉽지 않는 도전에 나서는 만큼 부담스럽다. 2007년 데뷔 이후 어깨통증으로 주축인 적이 있지만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다. 몸에 부담이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감내하고 이겨야 할 목표이다. 실제로 매년 각별한 관리를 통해 목표를 모두 이루었다. 대투수 양현종의 2020 시즌이 더욱 기대된다.

## “류현진, 다저스 떠났지만…2019년은 기억해야 할 해”



5회, 평균자책점 2.32를 작성했다.

평균자책점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오른 그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투표에서 29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위표 득표에도 성공했다.

트루블루 LA는 “류현진이 2019년 좋았던 점이 정말 많다”며 류현진이 2019시즌 작성한 기록을 하나하나 짚었다.

베이스볼리퍼런스 기준 류현진의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은 5.3으로, 다저스 투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티자들까지 포함해 전체로 보면 코디 벨린저(9.0), 맨스 먼시(5.7)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다.

또한 류현진은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 평균자책점 1.72를 기록했

고 피안타율은 0.221에 불과했다.

8월 중반까지 평균자책점 2.00 미만을 기록하던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인 2.32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트루블루 LA는 류현진이 2019 시즌 볼넷은 단 2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놀라운 볼 컨트롤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현진은 29경기에서 182 2/3이닝을 소화했는데 이는 2013년(192이닝) 이후 한 시즌 최다이닝 기록”이라며 “건강함을 증명했던 한 해”라고 돌아봤다.

최고의 경기로는 5월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을 꼽았다. 당시 류현진은 9구를 던지며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두 번째 완봉승을 달성했다.

명품화순 행복한 준마

**BUS TOUR**

##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이→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시→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답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이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시